II. 2027학년도 모의 논술고사 문제 및 해설(인문)

숭실대학교
Soongsil University

1. 문제(1) 및 제시문

문제 1 **〈보기〉에서 설명하는 '공간'과 '장소'의 차이점을 정리하고,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바탕으로 현대인이 살아가는 '공간'을 이상적인 '장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술하시오.(950±150자, 60점)**

〈보기〉

나의 정체성은 내가 살아온 장소들과의 밀접한 연결 속에서 구성된다. 인본주의 지리학에 따르면 “장소 = 공간 + 인간 의미”이다. 이-푸 투안(Yi-Fu Tuan)의 말처럼 본래 '공간'은 아무런 구별이 없는 무차별적인 상태이다. 그러나 인간이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며 감정과 욕망을 투영할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한다. 투안이 제창한 “토포필리아(장소사랑)”는 가시적 풍경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그 공간 맥락 속에서 타자들과 맺어온 관계성이 본질적 계기로 작동한다. 즉, 장소는 단순한 지리적 좌표가 아니라 공간적 정위와 타자와의 관계성이 직조되어 인간의 실존을 증명하는 기반이다. 결론적으로 장소는 '공간'이라는 물리적 축과 '타인'이라는 사회문화적 축의 지속적인 교차 속에서 사적 기억과 공적 삶이 함께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산물이다.

[가] 얼마 전 종로3가를 거쳐 익선동에 들렀다. 오랜만의 재방문이었지만, 그 사이에 익선동은 시간의 압축본처럼 더 두터워져 있었다. 여기서 오래됨은 낡음으로 남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도시 감각으로 번역돼 있다. 관광객으로 서로 어깨를 스치듯 걸으며 골목 여기저기 마주치는 가게와 식당은 더 이상 길과 분리된 개별 점포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길의 연장이자, 도시 체험을 위한 일종의 전시장이다. 익선동의 좁은 길은 단순한 통과 기능을 넘어 호기심의 무대가 되고, 젊은 기운을 가득 품은 방문자는 길 위에서 서로가 연출한 장면의 조연을 마다치 않는다.

낮게 엎드린 한옥의 중정, 상징적인 대문, 그리고 담장은 이제 과감히 과거의 역할에서 벗어나 허물어지고 재편되어 있다. 나지막한 집의 내부와 외부는 길과 마당이 연속된 흥미로운 공간으로 얽혀 방문자를 향해 열린다.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집과 집 사이, 좁디좁은 공적 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어느덧 친근한 밀도를 가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독특하게 인식되어 가고 싶은 장소가 된다. 과거의 공간이 다국적 인파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접속되는, 일종의 ‘탈피의 껍질을 간직한’ 현대 도시의 얼굴이 된 것이다.

[나] 그의 상여가 나간 지 삼우제*마저 지나고, 그의 살붙이 하나 남아 있지 않은 빈 집 마당에 쓸쓸히 바람이 돌 때, 나를 참으로 서글프게 한 것은 비단 그의 요절뿐만이 아니었다. 그가 가고 없음으로 해서, 우리의 유년 시절을 더없이 포근하게 감싸 주던 고향의 안온하고도 투박한 온기마저 온데간데없이 꺼져 버렸다는 쓸쓸함 때문이었다.

이제는 어느 집 사랑방을 들여다보아도 사랑방 가득 메케한 쑥연기를 피워 가며 짚방석을 짜거나 새끼를 꼬며, 앞방 이웃의 눈물겨운 대소사를 제 일처럼 걱정해 주던 정겨운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었다. 초상이 나도 저마다 제 발등의 불을 끄기에 급급하여, 예전처럼 가슴을 치며 상주보다 더 서럽게 울어 주거나 밤새워 상여 밑을 지켜 줄 상두꾼을 자처하는 이웃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가을걷이가 끝나 텅 빈 벌판에는, 이웃끼리 막걸리 사발을 건네며 한바탕 왁자지껄하게 웃어젖히던 타작마당의 사람 목소리 대신, 쇳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기계 소리만이 찬바람 속에 휑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가난하되 남을 먼저 대접할 줄 알고, 미련하리만치 이웃의 궂은일에 앞장서던 석공이 같은 심성은 이제 이 땅 어디에서도 발붙일 곳이 없어진 것만 같았다. (*삼우제: 발인 후 3일째 되는 날 세 번째로 지내는 제사를 가리킴, 사실상 장례를 마무리 짓는 의식)

[다] 그날은 오랜만에 한가해져 키치죠지*까지 긴 산책을 나가보기로 했다. 칸다가와* 양옆으로는 활엽수가 숲을 이루고 있었다. 시간이 넉넉했던 나는 그 숲 속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그러자 거기서 본 것은 신석기 시대 주거지의 흔적을 나타내는 표지판, 거기서 발굴되었다는 볼륨감 넘치는 토기의 사진, 복원된 주거지 내부에서 5천 년 전 부모 자식이 오순도순 식사하는 모습을 재현한 인형, 활엽수림 사이로 비쳐 드는 부드러운 겨울 햇살 등이었다. 키치죠지에 도착한 나는 주저 없이 자전거를 샀다. 칸다가와를 따

라 걷다 보니, '어라, 저기에도 뭔가가 있을지 몰라'라는 신기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자전거를 탄 도쿄 산책이 시작되었다.

그런 마음으로 도쿄를 둘러보면, 세련됨의 극치를 달리는 장소의 바로 뒤편에 엄청나게 오래된 시대의 퇴적이 남아 있다. 이 점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의 매력이다. 도쿄는 결코 균질한 공간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참으로 복잡한 다양체의 구조를 하고 있다. 거기에서 도쿄라는 도시가 울려 퍼뜨리고 있는 '대지의 노래'가 들려온다. (*키치죠지: 도쿄 도심의 서쪽에 위치한 동네. 칸다가와: 도쿄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약 25km 길이의 하천)

2. 문제(1) 해설

출제 의도

본 문항은 2027학년도 본교 인문계열 논술고사의 경향과 형식, 난이도 등에 관한 윤곽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출제되었다. 논술 본연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주제 선정과 제시문 분량 등 고교 교육현장의 현실을 최대한 고려했고 난이도 역시 수험생들이 부담을 덜 느낄 만한 방향으로 미세 조정했다. 아울러 유연하고 너른 답안구성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답안분량을 950±150자로 설정해두었다.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td></tr>
<tr><td>관련 성취기준</td><td>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국어</th><th>관련</th></tr>
<tr><td>성취 기준 1</td><td>[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td><td></td></tr>
<tr><th colspan="2">과목명: 문학</th><th>관련</th></tr>
<tr><td>성취 기준 1</td><td>[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td><td></td></tr>
<tr><th colspan="2">과목명: 통합사회</th><th>관련</th></tr>
<tr><td>성취 기준 1</td><td>[10통사03-01]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td><td></td></tr>
<tr><th colspan="2">과목명: 한국지리</th><th>관련</th></tr>
<tr><td>성취 기준 1</td><td>[12한지04-03]
주요 대도시를 사례로 도시 계획과 재개발 과정이 도시 경관과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td><td></td></tr>
</table>
</td></tr>
</table>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재구성여부
교과서 외	새로운 면역력의 도시를 향하여	김정인	숭대시보	2026		
	관촌수필	이문구	문학과지성사	1977		
	アースダイバー	中沢新一	講談社	2019		번역

문항 해설

[보기]는 '공간'과 '장소'에 관한 인본주의 지리학의 담론을 출제진이 정리·기술한 글이다. 이 두 개념을 제시하고 사람과 장소, 사람과 문화의 의미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느슨하게 세 개의 제시문을 배치했다.

제시문 [가]는 본교 신문에 개제된 한 칼럼의 일부 내용이다. 익선동 골목을 통해 소통과 접속이 가능한 공간, 친근한 밀도의 공간 구조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공간이 어떻게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성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를 질문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이문구의 『관촌수필』의 일부 내용이다. 이를 통해 현대 도시의 건조한 공간이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연대와 인정이 살아있는 공동체적 관계망, 궂은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상부상조의 정서와 인정이라는 가치가 채워질 때 비로소 물리적 공간이 온기를 품은 정서적 유대의 장소로 변모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제시문 [다]는 일본의 작가 나카자와 신이치의 연재 「어스 다이버」의 일부이다. 공간의 역사적·지리적 층위라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공간의 이면에 겹겹이 쌓인 대지의 옛 흔적과 시간의 퇴적, 삶의 기억을 재발견할 때 비로소 깊이 있는 '토포필리아'가 가능함을 역설하고 있다.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의 요구치를 충족하면서 논지 구성력이 뛰어난 경우	49~60
	문제의 요구치를 충족하면서 제시문을 적절히 활용한 경우	37~48
	문제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제시문을 단순히 요약한 경우	25~36
	답안 분량을 현저히 채우지 못한 경우	1~24
	백지 제출, 혹은 제시문과 관계없는 내용을 쓴 경우	0

※ 글쓰기 능력이 뛰어난 답안의 경우 1점 가점 부여 가능

예시 답안

[보기]에 따르면 '공간'은 주관적 구별이 없는 무차별적이고 물리적인 상태인 반면, '장소'는 인간이 감정과 욕망을 투영하고 타자와 정서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고유한 의미를 부여받은 실존적 기반이다. 즉, 장소는 물리적 공간이라는 축과 사회문화적 타인이라는 축이 교차하여 완성되는 역동적 산물이다. 오늘날 현대인의 공간은 상업화와 파편화로 인해 정서적 교감과 역사적 깊이가 부재한 비인격적 공간으로 전락하기 쉬우므로, 이를 이상적 장소로 탈바꿈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제시문 [가]의 논지와 같이 공간의 구조를 소통과 접속이 가능한 개방적·연속적 형태로 재편해야 한다. 익선동의 한옥 골목처럼 과거의 맥락을 살리면서 외부와 긴밀히 얽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친근한 밀도의 공간이 마련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일상 속에서 서로 어우러져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성을 형성할 수 있다.

둘째, 제시문 [나]의 논지에 따르자면 이웃 간의 연대와 인정이 살아있는 공동체적 관계망을 회복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대의 건조한 공간에 타인의 궂은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상부상조의 정서와 인정이라는 가치를 채워 넣어야 한다. 각박한 이기주의를 넘어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관계가 형성될 때, 단절된 물리적 공간은 비로소 온기를 품은 정서적 유대의 장소로 변모한다.

셋째, 제시문 [다]의 논지처럼 개인이 머무는 공간의 역사적·지리적 층위를 주체적으로 탐색하고 지각해야 한다. 도심의 외형 뒤에 겹겹이 쌓인 대지의 옛 흔적과 삶의 기억을 재발견하려는 유기적 관심이 더해져야 한다. 균질화된 공간 속에서 고유한 시간의 퇴적을 읽어낼 때, 개인은 비로소 공간에 대한 깊은 애착인 '토포필리아'를 체득하게 된다.

결국 현대의 공간을 이상적인 장소로 변모시키는 것은 단순한 환경 개조를 넘어선다. 연속적인 공간 구조의 창출, 공동체적 가치의 회복, 그리고 삶의 층위를 읽어내는 주체적 개입이라는 세 요소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다차원적 노력이 결합할 때 비로소 현대인은 자신의 실존을 증명하고 정서적 안식을 누리는 궁극적 장소를 완성할 수 있다.(공백 포함 1062자)

3. 문제(2) 및 제시문

문제 2 제시문 [가]의 두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고, 제시문 [나]를 근거로 자신이 선택한 입장이 더 설득력 있는 이유를 논하시오. (650±100자, 40점)

[가] 기술발전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는 기술발전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과 직업을 창출해왔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 이용 비용을 낮추고 활용 범위를 확대해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교육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경제적 기회가 확대되어, 장기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반면 기술발전은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견해도 있다. 새로운 기술은 이를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자본과 높은 수준의 지식·기술을 갖춘 개인과 기업에 더 큰 이익을 제공한다. 또한 자동화와 기술격차는 노동시장과 국가 간 격차를 확대하며, 적절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나] 인공지능(AI)은 문서 작성, 번역, 프로그래밍, 디자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맞춤형 학습과 실시간 번역을 통해 학생, 외국인, 장애인의 교육 및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의료와 돌봄 분야에서도 활용 범위를 넓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여러 국가와 기업은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 과정에서 AI 활용 교육을 확대하며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첨단 AI의 개발에는 대규모 데이터와 고성능 반도체, 컴퓨팅 시설 등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글로벌 대기업이 AI 기술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가·기업·개인의 디지털 역량 차이에 따라 AI 활용 능력과 그에 따른 경제적 기회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그 혜택이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갈 것인지를 둘러싼 새로운 사회적 쟁점도 낳고 있다.

4. 문제(2) 해설

출제 의도

본 문항은 기술발전과 사회적 불평등의 관계에 관한 상반된 입장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응시자는 제시문 (가)에 나타난 두 입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뒤, 제시문 (나)에 제시된 인공지능(AI)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자신이 선택한 입장이 더 설득력 있는 이유를 논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시문의 내용을 단순히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발전의 효과가 사회 구성원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중심으로 근거를 선별하고 연결하는 능력과 상반된 측면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판단을 일관되게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에게 충분한 논증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답안 분량을 650±100자로 설정하였다.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12사문04-0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성취기준 2	[12사문05-02]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한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관련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재구성여부
교과서 외	[가]출제 목적에 맞춰 출제진이 집필	출제진				집필
	[나]출제 목적에 맞춰 출제진이 집필	출제진				집필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기술발전과 사회적 불평등의 관계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제시한다. 첫 번째 입장은 기술발전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과 직업을 창출하며, 기술의 이용 비용을 낮추고 교육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한다고 본다. 반면 두 번째 입장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자본과 지식·기술이 일부 개인과 기업에 집중될 수 있으며, 자동화와 기술격차로 인해 노동시장과 국가 간 격차가 확대됨으로써 기존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제시문 (가)는 기술발전의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보급과 활용, 그리고 그로 인한 이익의 분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시문 (나)는 이러한 두 입장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이 가져오는 상반된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한편으로 AI는 문서 작성, 번역,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맞춤형 학습과 실시간 번역을 통해 교육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한다. 의료와 돌봄 영역에서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 역시 기술발전이 기존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다른 한편으로 최첨단 AI의 개발에는 대규모 데이터, 고성능 반도체와 컴퓨팅 시설 등 막대한 자원이 요구되므로 기술 개발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일부 글로벌 대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가·기업·개인 사이의 디지털 역량 차이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경제적 기회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동일한 기술의 확산이 오히려 기존의 자원

및 역량 차이를 증폭시켜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입장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응시자는 두 입장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한 뒤 제시문 (나)의 내용을 자신의 논거로 적절하게 재구성해야 한다. 기술발전이 불평등을 완화한다고 판단한다면 접 비용의 하락, 교육·정보 접근성 확대, 생산성 향상과 기술교육의 확산 등을 주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불평등을 확대한다고 판단한다면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원의 집중, 디지털 역량의 차이, 기술 활용 능력에 따른 경제적 기회의 격차 등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어느 입장을 선택하든 반대 방향의 효과가 존재함을 고려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최종 판단을 뒤집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면 보다 완결성 있는 논증이 될 수 있다.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구성한 경우. 또한 자신의 입장에 대해 나름의 근거를 잘 제시한 경우 단 33-40점 사이의 차이는 자신의 생각을 풀어내는 논리력과 구성의 적절성, 문장력의 정도를 반영함 (문장, 어휘, 문법)	33~40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나름의 논지를 구성하려 시도했으나 논리전개 및 연결성이 다소 미흡한 경우. 특히 자신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	25~32
	주어진 질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논지를 적절하게 연결시키지 못한 경우. 이에 더해 문법을 포함한 비문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17~24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활용하여 답안 작성을 시도하였으나 정해진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1~16
	백지 제출, 혹은 제시문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쓴 경우	0

예시 답안

기술발전이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입장을 취할 경우

제시문 (가)의 두 입장 중, 기술발전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견해가 더 설득력 있다고 본다.

첫째, 제시문 (나)에 따르면 AI는 맞춤형 학습과 실시간 번역을 통해 학생, 외국인, 장애인의 교육 및 정보 접근성을 넓히고 있다. 과거에는 값비싼 사교육이나 전문 통역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만 누리던 자원을 이제는 훨씬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원래 자원이 부족했던 집단일수록 얻는 이익이 크다는 점에서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둘째, AI는 문서 작성, 번역, 프로그래밍, 디자인처럼 오랜 훈련을 거쳐야 가능했던 업무를 대신 수행한다.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게 되므로, 숙련 수준에 따른 보상 격차가 좁혀질 여지가 생긴다. 의료와 돌봄 분야에서 인력 부족을 덜어 주는 것 역시 그동안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지역과 계층에 더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제시문 (나)는 최첨단 AI 개발에 막대한 자원이 필요해 글로벌 대기업이 기술을 주도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그러나 이는 개발 단계에서의 집중일 뿐, 이용 단계에서는 대다수가 낮은 비용으로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또한 여러 국가와 기업이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에서 AI 활용 교육을 확대하고 있어 디지털 역량의 차이도 좁혀질 수 있다. 따라서 기술발전은 장기적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된다.(공백 포함 690자)

기술발전이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입장을 취할 경우

제시문 (가)의 두 입장 중, 기술발전이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견해가 더 설득력 있다고 본다.

첫째, 제시문 (나)는 최첨단 AI 개발에 대규모 데이터와 고성능 반도체, 컴퓨팅 시설 등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주체는 소수의 글로벌 대기업뿐이며, 그 결과 기술이 만들어 내는 이익도 이들에게 집중된다. 기술의 혜택이 넓게 퍼지더라도 그 이익을 나누는 위치에 설 수 있는 국가와 기업은 제한적이다.

둘째, 제시문 (나)는 국가·기업·개인의 디지털 역량 차이에 따라 AI 활용 능력과 경제적 기회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같은 기술이 주어져도 이를 업무에 결합할 수 있는 사람은 생산성을 높여 더 많은 보상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일이 대체될 위험에 놓인다. 기술이 보편적으로 보급될수록 활용 능력의 차이가 곧 소득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이다.

물론 AI가 교육과 정보 접근성을 넓히고 의료·돌봄의 인력 부족을 덜어 준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기기와 통신망, 기초적인 활용 능력을 이미 갖춘 사람에게 먼저 돌아간다. AI 활용 교육의 확대 역시 교육 여건이 좋은 국가와 학교에서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 결국 적절한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기술발전은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공백 포함 662자)